

[번역]

물(âpas)과 믿음(śraddhā)*

— 고대 인도 종교의 세계관 —



사카모토(고토) 준코[阪本(後藤) 純子]**

[미야기학원 여자대학 그리스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
- I. 들어가는 말
 - II.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
 - III. 물(âpas)과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의 등치
 - IV. 물(âpas)의 다양한 속성
 - V. 인도 제식과 의례에서 물(âpas)의 역할
 - VI. 물에 대한 『리그 베다』 찬가
-

* 본 번역문은 일본인도종교학회(日本印度学宗教学会) 학술지 『論集』 제35권(2008: 仙台)의 110~89쪽에 게재된 「水たち' âpasと'信' śraddhā — 古代インド宗教における世界観」을 필자의 허락을 받고 박문성 신부(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신부)가 번역하였다.

‘水たちと信’은, 글자 그대로는 ‘물들과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물들’이라는 표현이 국문(國文)으로 어색하기에 ‘물과 믿음’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저자는 일반적으로 ‘신앙 혹은 믿음(信)으로 번역되는 슈랏다(śraddhā-)를 ‘믿음을 두는 것’(信を置くこと) 혹은 ‘믿는 생각’(信じる思い)이라는 독자적 용어로 일역(日譯)하는데,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살려 한글 번역한다. 기본적으로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을 위해 의역하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단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원문에는 제목 없이 단락 숫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번역자가 임의로 제목을 첨가한다. 가독성을 위해 원 논문의 본문에 제시된 산스크리트어 원문은 되도록 각주 처리하거나, 산스크리트 문장과 번역의 순서를 바꿔서 번역문을 앞에 둔다.

** 사카모토(고토) 준코는 저명한 고대 인도 사상·문헌·언어학자로서, 1973년에 교토대학 문학부(京都大学文学部)를 졸업하고, 1982년에 파리대학 제3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사카시립대학(大阪市立大学, 助教授)과 교토대학(京都大学, 講師), 오사카대학(大阪大学, 講師) 등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였다. 2006년부터는 미야기학원 여자대학 부속 그리스도교문화연구소(宮城学院女子大学附属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의 객원연구원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인도종교, 특히 신앙과 의례에 대한 흥미롭고 학문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홈페이지 <http://sakamotogotojunko.jimdo.com>에서 열람과 다운로드 가능).

I. 들어가는 말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믿는다’(信じる)는 주체적 정신활동이 있다. 고대 인도의 베다제식종교(브라만교)도 예외는 아니다. 믿음[信]은 제식(祭式)을 성취(成就)하고 그 효력을 유지(持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믿음이 ‘물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아파스’(āpas; 여성명사 āp-의 복수형 주격; 이하 ‘물’로 번역)로 상징되고, 때로는 동치(同置)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고대로부터 발견되는 ‘맹세 또는 계약’을 물이 보증한다는 관념도 흥미롭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이 정화(淨化)와 성별(聖別) 작용을 하는 경우에서처럼, 물의 속성에 대한 자연관찰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에 산스크리트어에서 물은 ‘우다카’(udaka-)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되지만, 물이 믿음을 상징하거나 맹세와 계약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념은 후대까지도 지속된다.

II.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¹⁾

믿음이란 개념이 지시하는 내용은 시대·지역·문화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고대 인도·아리안 언어에서 ‘믿음을 두다. 믿다. 신뢰하다’(<*kréd dheh1; ▶라틴어 crēdō, 나는 믿는다)를 의미하는 슈랏다(śrad√dhā-)란 동사가 인간(人間)·신(神)·말[文句]·이론(理論) 등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명사 슈랏다(śraddhā-<*kred- d^heh1-éh2-)는 ‘믿음을 두는 것, 믿는 것, 믿는 생각, 신뢰’를 의미한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진실(satyā-)로 인식하는 사고활동’이고 개념형성작용 차원에 속한다(▶각주 13). ‘진실’을 뜻하는

1) 고토 토시후미(後藤 敏文), 『śraddhā-, crēdō의語意と語形について』, 『印度学宗教学会論集』 제34호, 仙台: 印度学宗教学会, 2007, pp.579-561; 사카모노(고토) 준코[阪本(後藤) 純子], 『『究極のAgnihotra』を巡る Janaka王とYājñavalkyaとの對話』, 『印度学宗教学会論集』 제34호, 仙台: 印度学宗教学会, 2007, pp.484-427(특히 pp.464-462). ▶4.3. 물의 속성과 믿음(satyā-とśraddhā-).

사티야(satyā-)는 형용사로써는 ‘진짜로 실재하다. 틀림없이 실현하다. 효력이 불변 또는 불멸하다’라는 의미이고, 명사로써는 ‘진실 또는 진리’를 뜻한다.²⁾ 이처럼 진실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서, ‘진실한 말은 실현력(實現力)을 지닌다’는 관념은 베다 이후 인도사상의 근저를 형성한다.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믿음을 두는 것’(信を置くこと) 즉, 슈랏다(śraddhā-)는 제식이 성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제식은 제주(祭主)·제관(祭官)·신(神)들의 참여를 비롯하여, 실현력(발설된 내용이 성취되는 힘)을 지닌 말[言葉, brāhmaṇa-]과 제식행위[行作, kārmaṇa-]로 구성된다. 제식에서 슈랏다의 의미는 몇 가지 요소로 분석된다.

(1) 제식 참가자인 제주·제관·신들 사이의 상호신뢰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는, 전자[神]는 초월적 힘을 행사하고 후자[人間]는 찬사·헌공을 바친다는 정당한 교환(give and take)에 대한 신뢰가 있다. 또한 제관과 제주 사이에는,³⁾ 전자가 올바르게 제식 의례를 집행하고 후자는 제식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제공[布施]한다는 공정한 교환에 대한 신뢰가 있다.

2) 고토 토시후미, 「サッティヤ satyā-(古インドアーリヤ語 ‘實在’)とウースィア ousia (古ギリシャ語 ‘實體’)-인도의辿った道と辿らなかった道と-」, 『古典學の再構築』, 뉴어즈레터-제9호, 2001, pp.26-40.

3) 제주(특히 왕족)와 제관은 부(富)·권력(權力) 및 제식(祭式)·보시(布施)의 성과와 관련해서 매우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양자 사이의 신뢰는 언제나 안정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아타르바 베다』(Atharva veda, 각주 AV로 축약) 12.5.5~11; 56 (Brahmagavī), 『아이타레야 브라마나』(Aitareya brāhmaṇa; 각주 AB로 축약) 8.15.2-3(Rājasūya, Aindramahābhīṣeka), 사카모토(고토) 준코, “Das Jenseits und iṣṭā-pūrtā-”(▶각주 17) pp.487f.; ▶3.2와 ▶『今西順吉教授還曆記念論集』(▶각주 17), p.867을 참조하라. 또한 왕족 계급과 바라문 계급의 대립에 대해서는 필자의 『王族とAgnihotra』, 『印度學佛教學研究』, 제53-2집,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5, pp.947-941을 참조하라.

(2) 제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올바르게 발설된 말과 행해진 제식행위[行作]가 작용해서 제주가 의도한 것이 제식을 통해 실현된다고 믿는 것이다.

(3) 제식과 보시의 효력은 사후(死後)에도 유효하다는 신뢰

제주가 ‘[신에게] 제사지낸 것, 제식의 효력(iṣṭā-)’ 또는 ‘[제관에 게] 제공된 것, 보시의 효력(pūrtā-)’이 사후에도 유효하며 불멸하다고 확신하는 것(▶3.2; ▶각주 17)이다.

슈랏다(śraddhā-)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의 성격을 지니면서, 문맥에 따라 특정 측면이 강조된다. 쾰러(Hans-Werbin Köhler) 등이 중시하는 ‘제주(祭主)가 통 크게 증여 또는 보시(布施)하려는 마음’⁴⁾은 부차적 요소이고, 실제로는 슈랏다의 중심적 의미[語意]는 언제나 ‘믿음을 두는 것, 믿는 마음, 신뢰’였던 것 같다. 이 추상개념(믿음)은 현실적 에너지로 여겨져서 신격화되는 한편,⁵⁾ 제식 또는 의례에서 구체적 사물인 물[水]로 대체[置換]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III. 물(āpas)과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의 등치⁶⁾

3.1. 프라니타(Praṇīta) 의례(儀禮)

슈랏다(믿음을 두는 것, 믿는 마음, 신뢰)가 제식 거행[執行]에 반

4) “Spendefreudigkeit”, “Hingabe”[Hans-Werbin Köhler, *Śrad-dhā in der vedischen und altbuddhistischen Literatur* (Diss. Göttingen 1948), Wiesbaden, 1973]; “die zum Geben treibende Seelendisposition”(Oldenberg, *Religion des Veda*, 1894, p.565, 각주 3) 등. 고토 토시후미, 「śraddhā-, crēdō의 語意と語形について」(▶각주 1), 특히 p.577의 각주 2; pp.571.569.562.
5) 예를 들면, 「리그 베다」(*Rg veda*, 각주 RV로 축약) 10.151.1~5(Śraddhā 찬가)가 있다. 고토 토시후미, 「śraddhā-, crēdō의 語意と語形について」(▶각주 1), pp.574f.
6) 토이 미사키(土井 美幸), 「Chāndogya-Upaniṣadにおける5火2道説」, 大阪大學文學部卒業論文, 1996, p.10의 각주 6에서 기본적 부분(▶3.1; ▶3.3)을 이미 지적하였다.

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은 제식을 시작하면서 거행하는 프라니타 의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공동체가 거행하는 슈라우타(Śrauta) 제식의 기본형인 신월제(新月祭)·만월제(滿月祭)를 개시할 때, 물[水]을 동쪽으로, 즉 아하바니야 제화(Āhavanīya; 현공에 사용되는 祭火) 쪽으로 옮기는 의례[prāṇitāḥ, 동쪽으로 인도된(물)]이다. 브라마나 문헌⁷⁾은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과 동일하게, 물(āpas)이 의례를 통한 제식의 성공(成功)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슈랏다를 파지(捕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고층에 속하는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각주 MS로 축약)에서는 슈랏다(śraddhā)가 필요한 이유를 두 번에 걸쳐 상술한다.

3.1.1.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4.1.4(신월제·만월제의 장)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4.1.4에는 신들과 인간들은 제주가 ‘제사 지낸 것’(istā-; 제식의 효력▶3.2)에 믿음을 두기 위해 믿음(信)을 파지[捕捉]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물은 ‘믿음, 제식, 신들 고유⁸⁾의(priyā-) 영역, 진실’ 등과 등치(等置)된다.

제주가 ‘믿음을 두는 것’을 파지[捕捉]하지 않고 제사 지내면, 그가 제사 지낸 것(istā-)에 신들과 인간들은 믿음을 두지 않는다. 물을 동쪽으로(Āhavanīya 祭火쪽으로) 옮긴다. 물은 ‘믿음을 두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두는 것’을 파지하고 나서야 제주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 된다. 물은 제식이다. 제식을 [직물(織物)의 세로줄(縱糸)로서] 펼치고 나서 [인간 또는 아드바르유 제관(adhvaryu, 제식에서 공물을 바치는 실무를 담당하는 제관)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물은 신들의 고유(priyā- ▶각주 8) 영역에 있다. 신들의 고유 영역을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 [인간 또는 아드바르유 제관]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물은 진실이다. 바로 진실을 파지[捕捉]하고

7) 흑(黑) 『야주르 베다』(*Yajur veda*, 각주 YV로 축약)의 산문(P)과 브라마나라고 불리는 문헌군.

8) priyā-에 대해서는 T. Gotō, “‘Purūravas und Urvaśi’ aus dem neuentdeckten Vādhūla-Anvākyāna(Ed. Ikari)”(*Anusantatyai*, Fs. Narten, 2000, pp.79~110), pp.87f.와 『新資料 Vādhūla-Anvākyānaの伝える』*Purūravas und Urvaśi* 物語(神子上惠生教授頌壽記記念集 「インド哲學佛敎思想論集」, 2004, pp.845~868), pp.860f.를 참조하라.

나서야 제주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 된다. 물은 훼손력(毀損力)을 쳐부수는 것이다(▶5.3). 훼손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다]. 물은 근봉(根棒, vājra, 금강저)이다. 경쟁 상대들을 향해 근봉을 내리친다. [그것은] 내리치기 위한 [것이다]. 물은 ‘믿음을 두는 것’이다. 즉(ha), 신들이 ‘믿음’을 [그리고] 인간들이 ‘믿음’을, 그가 제사 지낸 것(iṣṭā-)에 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제관]이 이렇게 알고 있는 [제주]의 물을 동쪽으로 옮긴다면, ‘하늘에 속하는 [여신인] 물이여! 선두에 서서 가는 자들이여! [선두에 서서 이끄는 것들이여! 이 자의 제식의 선두에 서서 동쪽으로 가라]’⁹⁾라고 [옮으면서]. 바로 제식을 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된다.¹⁰⁾

3.1.2.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1.4.10(제주의 장)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1.4.10는 ① 믿음을 파지하지 않고 제식을 거행하면 제주는 ‘[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것, ② 그리고 ‘물 = 믿음’이라는 것은 말(祭詞, 제식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사고(思考)를 통해서만 파지(把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악센트 표기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문장이 『카타카 상히타』 (*Kāṭhaka saṃhitā*, 각주 KS로 축약)에도 나타난다.

제주가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을 파지하지 않고 제사 지내면, 그 자는 더 나쁘게 된다. 물은 ‘믿음을 두는 것’이다. 물은 말에 의해서 파막되는 것이 아니다. 즉, 제사(祭詞)를 통해 [파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여성(水)들은 말(言葉)을 넘어서 흘러가는 것이다. [즉] 제방을 넘어서 흘러간다. 그러나 사고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물을 잡을(『카타카 상히타』는 ‘잡으려고 하는’) 경우는 언제나 이것(믿음을 두는 것, śraddhā-)을

9) 만트라 MS 1.1.4.2.12f. *dévīr āpo 'greguvo 'grenīyo 'gre 'syā yajñāsyā prēta. ~ KS 1.11:5.19*이다. 참조: 『마나바 슈라우타수트라』(*Mānava śrautasūtra*) 1.2.1.12; 5.21; 8.4.3.

10) *yó vai śraddhām ānālabhya yājate*(Ed. *yajate*) *nāsyā devamanuṣyā*(Ed. *devamansayā*) *iṣṭāya śrād dadhaty. apāḥ prāṇayaty. āpo vai śraddhā. śraddhām evālabhya yajatā. āpo yajñō. yajñām tátvā prācaraty. āpo devānām priyām dhāma. devānām priyām dhāma pranīya prācaraty. āpo satyām. satyām evālabhya yajatā. āpo rakṣoghnī. rākṣasām āpahatyā. āpo vājro. vājram bhrā trvyāya prāharati. stītyā. āpaḥ śraddhā. śrād dhāsyā*(즉, *śrād + ha + asya*; Ed. *śrādddhāsyā*; 사본 *śraddhasya, śrādasya, śradasyā*). *devāḥ śrān manuṣyā iṣṭāya dadhate. yāsyaiṣvām vidūṣa evām vudvān apāḥ prāṇayati* “*dévīr āpo 'greguvā*” *īti yajñām evā prāṇayati*// MS^p 4.1.4:5.18~6.6(Darśapūrnamāsau puroḍāsa).

사고(思考)를 통하여 염송(念誦)해야만 한다.¹¹⁾

『타이트리야 상히타』(*Taittirīya saṃhitā*, 각주 TS로 축약)의 원망제(願望祭)와 관련된 제주의 장은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의 4.1.4(신월제·만월제의 장)를 계승하면서도,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1.4.10(제주의 장, 『카타카 상히타』에서 물은 사고(mānas-)를 통해서만 파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수용한다.¹²⁾ 한편 『타이트리야 브라마나』(*Taittirīya brāhmaṇa*, 각주 TB로 축약)의 3.2.4.¹³⁾은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의 4.1.4를 간략화하고, 제주가 믿음을 파지하는 것을 통해, 신과 인간이 그가 제사 지낸 것에 믿음을 둔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한편, 같은 의례에서 제주가 읊는¹⁴⁾ 만트라(『타이트리야 브라마

11) yó vái śraddhām ānālabhya yájate pápiyām bhavaty. āpo vái śraddhā. ná vácā grhyante ná yájusā-. āti vā etā vācam nédanti āti vartam. mānas tú nātinédanti. yáryh apó grhñiyād(KS *grhñīyan syād*) imāṃ tārhi mānasā dhyāyet// MS⁹ 1.4.10:59.2(Yajamāna), ~ KS⁹ 32.7:26.15.

12) ‘믿음을 두는 것’(śraddhā-)을 파지하지 않고 제주로서 제사 지내면, 그가 제사지낸 것(iṣṭā-)에 [신들과 인간들이] 믿음을 두지 않는다. 물을 동쪽[Āhavanīya 祭火]으로 옮긴다. 물이 ‘믿음을 두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두는 것’을 파지하고 나서야 제주로서 제식을 통해 제사 지낸 것이 된다. 신들과 인간들 양자가 그가 제사 지낸 것(iṣṭā-)에 믿음을 둔다.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水]들은 방죽을 넘어서 흐른다. [즉] 말을 넘어서 [흐른다. 그러나] 그녀들이 참된 사고(mānas-)를 넘어서 흐르는 경우는 없다. [물이] 사고에 의해 동쪽으로 이끌린다. 사고가 이것(믿음을 두는 것; śraddhā-)이다(▶2). 바로 이것(śraddhā-)에 의해 바로 그녀[水]들을 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아는 자(祭主)는 넘쳐 흘러나오지 않는 공물을 지닌 자가 된다[yó vái śraddhām ānārabhya yájate nāsyēiṣṭāya śrād daddhate. ‘pāḥ nayati. śraddhā vā āpaḥ. śraddhām evārabhya yajñēna yajata. ubhāye ‘sya devamanusyā iṣṭāya śrād dadhate. tād āhur. āti vā etā vartam nedanti, āti vācam. máno vāvāitā nātinédanfti. mānasā prā nayati-. iyām vái mánah//1// enāyaivāināḥ prā nayati āskannahavir bhavati yá evēm veda. TS⁹ 1.6.8.1~2(Aiṣṭikayajamnavidhi, Yajñāyudhasambhṛti)].

13) 물을 동쪽[Āhavanīya 祭火]으로 이끈다(옮긴다). 물은 ‘믿음을 두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두는 것’을 파지하고 나서야, [즉] ‘물’을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야, [사람 또는 아드바르유 제관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된다. 물을 동쪽으로 옮긴다. 물이 제식이다. [...] 물이 모든 신격들이다. 바로 신격들을 파지하고 나서야, [즉]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야, [사람 또는 아드바르유 제관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된다(apāḥ prānayaty. śraddhā vā āp

ah. śraddhām evārabhya praṇīya prācarati. apāḥ prānayaty. yajñó vā āpaḥ [...] āpo vái sárva devātāḥ. devātā evārabhya praṇīya prācarati).

나』 3.7.4)는 물이 믿음을 파지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라고 언급한다.

전방으로 흘러 나간다. 위쪽으로. 또한 모든 방향으로 [흘러 나간다].
태양광선을 정화의 도구로 하는¹⁵⁾ 그녀[水]들에 의해서, ‘믿음을 두는
것’ [그리고] 제식을 [나는] 파지한다.¹⁶⁾

위에서 언급한 『야주르 베다』 산문의 ‘물과 믿음의 동치’는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운문인 만트라외의 ‘물을 통해 믿음을 파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아래에서 언급하는(▶4.3.1) 것과 같이, 물은 영원히 우주를 순환하면서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고 불멸하기 때문에 진실(眞實)을 상징한다. 앞에서(▶2) 서술한 것처럼, 믿는 것은 진실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믿음과 진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믿음은 진실을 통해서만 파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진실인 물을 통해 믿음을 파지’한다는 사고방식이 먼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물이 곧 믿음’이라는 동치가 파생했다고 추측된다.

3.2. 케신 다르비야(Keśin Dārbhya)의 가르침

제주가 ‘제사 지낸 것’(iṣṭá-, √yaj의 과거분사)은 제화(祭火)를 통해 하늘로 옮겨지고(▶4.2), ‘제사 지낸 제식의 효과’로서 축적(蓄積)되고, 사후에 천계(天界)에 올라간 제주와 합체(合體)하여, 그가 천계에서 사는 생활기반이 된다. 제주가 제관에게 ‘[보수로서] 바친 것, 즉 보시의 효력’(pūrtá-; pari, pīnā-ti의 과거분사)도 마찬가지이다(▶4.2). 그리고 그의 ‘제식과 보시의 효력’(iṣṭā-pūrtá-)이 끝나면 천계에서 다시 죽고[再死] 지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14) 참조: 『아파스탐바 슈라우타수트라』(Āpastamba śrautasūtra) 4.4.4, 『바우다야나 슈라우타수트라』(Baudhāyana śrautasūtra) 2.1:34.3f.

15) 물의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경로로 우주를 순환한다(▶4.2).

16) yāḥ purāstāt prasrávanti/ upāriṣṭāt sarvátaś ca yāḥ/ tābhī raṣmīpavitrābhiḥ/ śraddhām yajñām ārabhe//.

『리그 베다』 말기부터 브라마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발달하여, 우파니샤드 시대부터는 업과 윤회 이론의 기초가 된다.¹⁷⁾ 그리고 천계에서 ‘다시 죽는 것’(再死, punaru-mṛtyú-)을 면함으로써 불사(不死, amṛta-)를 얻는 것이 베다제식의 궁극목적이 되었고, ‘제식과 보시의 효력’을 통한 불멸이 추구되었다. 그것을 위해 슈라우타(śrauta) 제식의 제화(祭火)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많은[多數] 제식을 거행하고, 제판에게 많은 보수를 건네는 것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브라마나 문헌 최고(最古) 층에 속하는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의 산문 1.8.6:123.18ff.(Agnihotra)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일 [제화(祭火) 설치자가] 많은 [보시]를 하고, 많은 [제식]을 제주로서 거행한 다음, 자신의 제화를 [자기 죽음을 통해] 제거 [혹은 정리] (역주: 가장인 제주의 시체를 화장할 때, 그가 결혼할 때 장인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가정 제화를 사용하는데, 그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묘사한 것)했을 때라도, [그의 제식과 보시의 효력(iṣṭāpūrtā-)]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iṣṭāpūrtā-)은 [사후에] 그에게 귀속된다. 제주(祭主)로서 제사를 지낸 선행자(善行者)들은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다면, 그것들이 이 자들이다. [사람들이] “빛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별)들이 이 자들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 세계(天界)에] 도달하여 머문(滞在) 후에, 저 세계를 떠나는 경우는 언제나, [또는 떠나거나 그렇지 않거나](역주: 제식과 보시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면 천계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각자가 [스스로 얻은] 세계에 걸맞게 이 세계가 따른다(즉, 조건에 맞게 태어난다). 한편 많은 [보시]를 하고 제주로서 많은 [제식]을 제사 지내고, 아그니호트라(Agnihotra)를 헌공하고, 신월제와 만월제를 제사 지내고, 계절제(季節祭)로서 제사 지내고, 많은 샷트라(Sattra, 바라문에게만 허락된 특수한 소마제)를 행한다면, 그에게 이것들(제식과 보시의 효과)이 불멸·무한한 것으로서 귀속된다.¹⁸⁾

17) ‘제식과 보시의 효력’(iṣṭā-pūrtā-)에 대한 관념은, BĀU(Yājñavalkya의 교설)와 불교 등에서 ‘업’(kārman-), 미망사 학파의 ‘아푸르바’(apūrva- 不可見의 果報) 사상으로 이어진다. 참조: 사카모토(고토) 준코, 「iṣṭā-pūrtā- 『祭式と布施の效力』と來世」『今西順吉教授還曆記念論集「インド思想と佛教文化」』(1996), pp.882-862; cf. “Das Jeneits und Iṣṭā-pūrtā- ‘die Wirkung des Geopferten-und-Geschenkten’ in der vedischen Religion”, *Indoarisch, Iranisch und die Indogermanistik*, 2000, pp.475-490, 특히 pp.476-478.

18) yó vai bahú dadivān bahn ījānò 'gnīm utsādāyate 'kṣīt. tād vai tāsya tād. ījānā vai sukrīto

단 한 번만 제식을 행한 제화 설치자[祭主]라면, 사후에 천계에 올라가더라도 자신이 지닌 ‘제식의 효력’이 금방 떨어지고 ‘다시 죽어’[再死] 천계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상태에 있던 조상의 영[祖靈]이 황금 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손(子孫) 중에 제관학자인 케신 다르비야에게 ‘한 번만 제사 지낸 제식의 효력이 불멸한지’를 묻는 것이 브라마나 문헌에 남아 있다. 그곳에서 케신 다르비야는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을 두고 제사를 드리면’ 제식의 효력은 불멸하고, 그 불멸을 ‘모든 세계와 체내(體內)의 물의 불멸’이 보증한다고 가르친다.

이어서 주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을 두는 것’이 단 한 번만 제사 지낸 [제식의 효력(īśtá-)]의 불멸이다. 어떤 사람이 [제식의 효력에] 믿음을 두고 제주로서 제사 지내면, 그가 지낸 [제식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불멸은 곧 물이다.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물]과 자신과 관련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이 [물]이 있기에. 그러므로 불멸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알고 제주로서 제사 지내면, 그 사람이 제사 지낸 [제식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때 케신 다르비야는 바로 이 불멸(不滅)에 대해, 황금[알]로부터 태어난 새[祖靈]에게 단 한번만 제사지낸 [제식의 효력]이 불멸한다고 공언했다.¹⁹⁾

3.3. 5화2도설(五火二道說)

5화2도설은 고대 인도의 윤회(輪廻) 이론을 전개하는 형식으로 유명하다. 전반의 5화설(五火說)은 ‘인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를, 후반의 2도설(二道說)은 ‘인간은 사후에 어디로 가는가?’

'mum lokam té vā eté yān nāksatrāṇi. yād āhūr, jyōtir āvāpādi tārakāvāpādīti, té vā eté 'vapadyanta. āptvā sthitē tā idam yathālokam sacante yadāmūtaḥ pracyāvantē. 'tha yō bahū dadivān bahv ījānò 'gnihotrām juhōti darśapūrṇamāsāu yājate cāturmāsyaīr yājate bahūni satrāṇy upāiti, tāsa vā etād akṣayyām āparimitam.

19) atha khalu śraddhaiva sakṛdīśṭasyākṣītiḥ. sa yaḥ śraddadhāno yajate, tasyeṣṭam na kṣīyate. āpo 'kṣītiḥ, yā imā eṣu lokeṣu, yās cemā adhyātman. sa yo mayy akṣītir iti vidvān yajate, tasyeṣṭam na kṣīyate. etām u haiva tat keśī dārbhyo hiraṇmayāya śakunāya sakṛdīśṭasyākṣītim provāca. 『카우쉬타키 브라마나』(*Kauṣītaki brāhmaṇa* 7.4; Ed. Sarma 7.6, 소마제의 결제 Dīkṣā).

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파니샤드에는 거의 같은 두 전승이 『브리하드아란야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각주 BĀU로 축약)의 6.2.1~16과 『찬도기야 우파니샤드』(*Chāndogya upaniṣad*, 각주 ChU로 축약)의 5.3.1~10.10^{10.1}에서 교정²⁰에 나타난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을 두는 것, 믿는 마음, 신뢰(śraddhā-)가 곧 물(āpas)’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것은 판찰라(Pañcāla) 왕 프라바하나 자이발리(Pravāhaṇa Jaivali)가 젊은 바라문(brahman) 학자 슈베타케투(Śvetaketu)에게 5개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한다.

- (1) 생명체들은 이 지상에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 (2) 어떤 과정을 통해 그들이 다시 지상에 돌아오는가?
- (3) ‘신들이 가는 길’[panthā-devayāna-, 神道]과 ‘조상의 영이 가는 길’[panthā-pitṛyāna-, 祖道]이라는 두 길로 갈라져서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²⁰⁾
- (4) 어떻게 해서 [모든 유정(생명체)이 죽어서 가는] 저 세계가 짝 차지 않는가?
- (5) 어떻게 5번째 [제화를 이용한] 현공을 통해 물이 사람의 언어를 지닌 자가 되는가?²¹⁾

20) 이미 RV 10.88.15에서 사람이 사후(死後)에 가는 길이 2종류라는 것이 언급된다. “조상(父祖)들이 [가는] 두 길에 대해 나는 들었다. [즉], 신들의 [길]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길을. 그 두 길을 통해 아버지[天]와 어머니[地]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움직이는 것이 함께 나아간다”(dvé sruṭi āśṛṇavam pitṛñām/ ahām devānām utā mārtyiyanām/ tābhyām idām viśvam éjat sám eti/ yád antarā pitāram mātāram ca//). panthā-devayāna-(단수/복수)는 RV에는 ‘신들이 제식에 왔다 돌아가는 길’ 또는 ‘아그니(Agni)가 공물(供物)을 신들에게 옮기는 길’을 의미한다. AV 18.4.62-64에서 panthā-pitṛyāna-는 ‘조상의 영이 매월 조령제(祖靈祭)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을 지시한다. devayāna-[신들이 왕래하는 [길 또는 세계](단수/복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실례를 참조하라. AV 5.18.13(pitṛyāna-, lokā- ‘조상들이 가고 오는 세계’), 6.117.3(devayānāḥ pitṛyānāś ca lokāḥ), 12.2.10(pathibhiḥ pitṛyānāḥ [...] devayānāḥ), 15.12.5(prā pitṛyānam pānthām jānāti prā devayānam)~9(否定文), 18.4.62(gambhīrāḥ pathibhiḥ pitṛyānāḥ), MS 4.2.1: 22.14ff(‘신들의 시각인 태양’ :: ‘祖靈들의 시각인 달’ = devayāna- pānthā- :: pitṛyāna-pānthā-), ŚB-M 1.9.3.2(제화로부터 태양에 통하는 길(pānthā-)이 지나가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에 따라서 devayāna-도 pitṛyāna-도 된다(▶각주 17에서 언급한 필자의 “Das Jenseits und iṣṭā-pūrtā- [...]” p.478, 『今西順吉教授還曆記念論集』 pp.876f.)).

슈베타케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권위를 지닌 학자인 아버지 아루니(Āruṇi)에게 답을 구하지만 그도 대답하지 못한다. 결국 슈베타케투는 자이발리(Jaivali) 왕에게 돌아가서 왕족(王族, kṣatriya)만이 아는 지식이었던 5화2도설을 배운다. 그중 전반부 5화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 세계는 제화(祭火, agni-)이다. 태양이 타오르는 땔감[焚木]이다. 광선은 연기다. 낮[昼]은 화염이다. 달(candramās-)은 부지깽이(熨)이다. [...] 이 제화 안에 신들이 ‘믿음을 두는 생각(śraddhā-)’을 현공한다. 이 현공으로부터 [식물의] 왕 소마(soma-rājan-)²²⁾가 발생한다.

(2) 파르잔야(parjanya, 비의 신)는 제화이다. [...] 이 제화에 신들이 [식물의] 왕 소마를 현공한다. 그 현공으로부터 비가 발생한다.

(3) 대지는 제화(祭火)이다. [...] 이 제화에 신들이 비를 현공한다. 그 현공으로부터 음식[食物]이 발생한다.

(4) 남자는 제화이다. [...] 이 제화에 신들이 음식을 현공한다. 그 현공으로부터 정액이 발생한다.

(5) 젊은 여인은 제화이다. [...] 이 제화에 신들이 정액을 현공한다. 그 현공으로부터 태아가 발생한다. 이것이 5번째 현공에서 물이 인간의 말을 지닌 자가 된다는 것이다.

신들이 믿는 생각(śraddhā-)을 현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단계의 제화를 사용한 현공을 거쳐서 최후에 태아가 태어난다. 이것이 ‘물이 인간의 말을 지닌 자가 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들이 현공하는 어느 곳에도 물은 언급되지 않고, ‘믿는 생각(śraddhā-)’이 곧 물(āpas)’이라는 사실만이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21) yathā pañcamyām āhutāv āpaḥ puruṣavacaso bhavanti.

22) 소마(sóma)는 각성 또는 흥분작용을 하는 식물[麻黃 ephedra로 추측된다]을 찢음으로써, 제식의 공물이고 제식에 참가하는 자가 마시는 것이고, 신들의 ‘불사를 지닌 음료(ambrosia)’(amṛta-)라고 여겨진다. 왕 소마라는 호칭은 식물을 찢음뿐만 아니라 천공의 달을 지시할 때도 사용되지만(▶4.2; ▶각주 34-41), 해당 구절에서는 달을 candramās-라고 지칭함으로써 식물의 찢음인 소마와 구별하고 있다.

『자이미니야 브라마나』(*Jaiminīya brāhmaṇa*, 각주 JB로 축약)의 1.45 (아그니호트라)는 5화설보다 오래된 형태를 언급한다.

바로 이 타오르는 것(太陽),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속하는 불(普遍火, *agni-vaiśvānara*)-이다. [...] 이 보편적 불(普遍火)에 매일 신들이 불사의 음료(*amṛtam*; 중성·단수·목적격)인 물(*āpas*; 여성·복수·목적격)을 헌공한다. 그 공물을 헌공하면, 그것으로부터 [식물의] 왕 소마가 발생한다. [...] 여자(女)가 보편적 불(普遍火)이다. [...] 그러한 이 보편적 불에 매일 신들이 정액을 헌공한다. 그렇게 공물을 헌공하면, 그곳으로부터 인간이 발생한다.²³⁾

『자이미니야 브라마나』는 ‘최초의 공물이 물’이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우파니샤드에서 물이 믿음(*śraddhā*)-으로 대체된 것은, 당시에 이미 ‘물(*āpas*)과 믿음(*śraddhā*)-의 등치’의 사상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1) 『자이미니야 브라마나』의 5화설(五火說)은 자나카(*Janaka*) 왕의 5화설(『샤타파타 브라마나』(*Śathapatha brāhmaṇa*, 각주 ŚB로 축약, *Mādhyaṇdina* 11.6.2, *Kāṇva* 13.6.2)을 기초로 해서 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²⁴⁾ 자나카의 이론에서는 인간이 지상에서 제화를 바치는 아그니호트라(*Agnihotra*)의 공물(가열한 우유)이 기점이 되어 ① 허공(中空) ② 하늘 ③ 땅 ④ 남자 ⑤ 여자라는 [다섯의 모든] 제화(祭火)를 경유해서 남자로 태어난다. 모든 이본(異本)들에서도 동일하게, 5화설은 물(供物)이 우주를 순환하면서 생명을 발생시킨다는 사상(▶4.2)을 기반으로 한다.

(2) 2도설(二道說)은 사람이 사후에 다다른 두 길(*devayāna*-와 *pitryāna*)-로서, 물[水]·광열(光熱)·생명(生命) 에너지의 순환과 관련된 태양 계통의 이론과 달 계통의 이론(▶4.2)이 통합·발전된 것이다.

23) *ēṣa vā agnir vaiśvānaro ya eṣa tapati/ [...] tasminn etasminn agnau vaiśvānare 'harahar devā amṛtam apo juhvati/ tasyā āhuter hutāyai somo rājā sambhavati// [...] striyo vā agnir vaiśvānarah/ [...] tasminn etasminn agnau vaiśvānare 'harahar devā reto juhvati/ tasyā āhuter hutāyai puruṣas sambhavati//*

24) Cf. 사카모토(고토) 준코, “Zur Entstehung der Fünf-Feuer-Lehre des Königs Janaka”, *Akten der 27. Deutschen Orientalistentages*, 2001, pp.157~167; “*kathāṃ-katham agnihotrāṃ juhutha-Janakas Trickfrage in ŚB 11.6.2.1*”, *Anusantatyai. Fs. Narten*, 2000, pp.231~252.

IV. 물(âpas)의 다양한 속성

물이 ‘믿음을 두는 것’과 동일시된 기반에는 자연관찰을 통한 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상정된다. 특히 물의 순환과 관련된 이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4.1. 물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

고대 인도·아리안 언어에는 물을 나타내는 명사[實體詞]가 많았다. 그중 하나가 중성명사 우단(udán-, *udr-, 주로 『리그 베다』)과 그것의 확대형인 우다카(udaká-, 『리그 베다』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됨)로서 ‘물질인 물’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접미사 n과 r의 교체(交替)가 가능한 ‘원시 인도유럽어’[印歐祖語]까지 어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물질명사로서(주격, *uód-r, 소유격 *uéd-n-s), 영어 water와 그리스어 húdōr 등과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²⁵⁾ 중성명사 바르(vár-, RV+, 이후에는 vāri-)도 물질적 물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다른 인도·유럽어에서는 ‘빗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²⁶⁾

다른 대표적 어휘는 여성명사 압(âp- 원시 인도유럽어 *h₂ép-)이다. 보통은 복수형(주격, âpas)으로서 ‘살아 있는 물’, 즉 ‘정신을 갖추고 활동하는 생명체의 집합인 물’을 의미한다. 이 ‘살아 있는 물’은 데비(devī-), 즉 하늘에 속하는 신적 존재의 여성 집단으로 여겨지면서 베다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질인 ‘물’(중성단수 udán-, udaká-, vár-)과 신격(神格)인 ‘물’(âpas)은 베다 문헌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두 개념의 경계가 애매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압(âp-)이란 단어가 쇠퇴함과 동시에,²⁷⁾ 물질적 물은 주로 우다카(udaká)로 표기된다. 그

25) Cf. Mayrhofer,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oarischen* I, p.215, s.v.(1988).

26) Cf. Mayrhofer, *op.cit.* II, pp.544f, s.v.(1995).

27) 팔리어에서는 여성명사 복수형인 âpas에 대응하는 중성명사 âpo(단수, 주격)와 그것으로부터 2차적으로 파생한 남성명사 âpa-(물; 단수/복수)가 사용되어, 복합어 앞부분에는 âpo-, âpa-의 두 형태가 나타난다. âpo-kāya-(물의 집합체)는 7원소(땅·물·빛과 열·바람·즐거움·고통·생명)의 하나로서 ‘물이라는 요소’를 의미한다. A

리고 ‘하늘에 속하는 [신적] 여성’으로서 물의 속성은 아프사라스(apsarás-)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각주 32, Urvaśī).

4.2. 물의 순환

고대 인도에서 ‘물의 순환’은 ‘태양·불의 빛과 열의 힘(光熱力)의 순환’ 또는 ‘생명주체(āsu-, ātman- 등의 단어로 표현)의 순환’으로 종합되면서, 장대한 ‘물, 광열(光熱), 생명 에너지의 순환’ 이론²⁸⁾을 형성한다.

물은 하늘로부터 비가 되어 대지에 떨어지고, 지하에 스며들었다가 샘물(泉)로서 솟아나서, 하천을 따라 흘러가고, 호수와 늪(湖沼)을 형성하고, 바다로 들어가거나 생물의 체내에 들어갔다가 배출되어, 다시 증기가 되어 허공을 통해 하늘로 상승하면서, 영원히 우주(마크로코스모스와 미크로코스모스)를 순환한다. 기본적으로 이 순환의 기점은 태양이고, 태양이 물을 흡수했다가 방출한다고 이해했다. 태양으로부터 대지에 내린 물은 태양 또는 불로 끓여져서, 허공에 있는 빛나고 뜨거운 물 입자(mārici-²⁹⁾ 복수형)가 되고 태양광선(raśmī-³⁰⁾, 복수형)을 경로(經路)로 삼아 상승하여(▶3.1. 끝부분: 『타

Critical Pāli Dictionary II, pp.85f., 105. 참조. 아르다마가디아어(Ardhamāgadhī)에서는 남성 명사 āu-(물; 단수/ 복수)로서 활용된다(Pischel §355). 자이나교에서는 āu-kāya-(또한 āu-kāyaya-, āu-kāiya-)의 어의가 ‘살아 있는 물의 집합체’로부터 ‘물에 자리 잡은 생물의 집합체’로 전환한다(渡辺 研二와 河崎 豊의 敎示에 따른 것).

28) 1994년에 일본인도불교학회(『輪回轉生における生命エネルギーの攝取・流入の理論について』)와 인도사상사학회(『五火二道說成立の背景』)에서 자료와 함께 구두발표: 부분적 요약에 대해서는 “Das Jenseits und iṣṭā-pūrtā-[...]”(▶각주 17) pp.476ff를 참조하라. 상세한 것은 다른 논문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9) Cf. Weber, *Indische Studien* IX, 1865, p.9 각주 1. 한역불전의 『摩利支天』으로 계승된다.

30) 통상 복수형으로 사용된다. 원의는 ‘가죽 망’[革網]으로서 태양(인드라와 등치된다)이 지상의 만물을 엮어서 만든 ‘수망(手網)’으로부터 ‘태양광선’이라는 의미로 발전된 것 같다. 태양광선은 신들, 마루트(Marut) 신군(神群), 일체신(Viśve Devāḥ), 이따금 조상의 영들과 등치(等置)되는 특정 신군[神群, 참조: 사카모토(고토) 준코, 『究極のAgnihotra [...]』(▶각주 1)의 478쪽 각주 20], 또는 ‘[사망한] 선행자(sukṛt-)들’이라고 파악된다(▶각주 31).

잇티리아 브라마나』의 만트라 3.7.4) 태양에 흡수된다. 같은 방식으로 제화(祭火)에 부은 공물(供物, 대표적으로 우유·녹은 버터·소마를 짠 즙)도 제화의 길(道)을 통해 태양에 다다른다. 이러한 태양과 제화를 축으로 하는 에너지순환이론이 인도 고대사상의 근간이고³¹⁾ 앞에서 언급한 5화설(▶3.3)의 기반이 된다.

또한 물은 ① 식물에게 흡수되고, ② [식물의 형태로] 동물에게 먹히고, ③ 모든 생물의 내부를 흘렀다가 다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서, 외계(外界)와 생명체를 엮어가면서 생명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활력과 자양(滋養)을 공급(供給)하기 때문에, 무병과 장수를 가능케 하는 약(bheṣajā-) 또는 불사의 음료(ambrosia, amṛta-)라고 여겨진다(▶6.2, 6.3). 생명의 근원으로서 ‘어머니들’(ambāyah▶6.2; mātārah▶6.1, 6.3)이라고 불리고, 또한 ‘물(apās)로부터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³²⁾라는 표현도 발견된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5화설(▶3.3)에서 ‘물로부터 태아가 발생한다.’ 또는 ‘공물(供物)로부터 남자가 탄생한다’는 이론이 전개된다.

한편 달이 차고 기우는 것[朔望]과 달의 운동을 이용한 다른 순환이론도 성립된다. 달은 차고 기울기를 계속하며, 매일 밤 다른 별 혹은 다른 별자리[月宿 nākṣatra-는 여성신격]에 가까이 간다. 초하

31) 예를 들면, RV 1.164.7; 47; 51, AV 7.107.1, TS^p 3.3.4.1, VS 38.6(ŚB 14.2.1.21), JB 2.333, 『마하나라야나 우파니샤드』(*Mahānārāyaṇa upaniṣad*) pp.533f. [『타잇티리야 아란야카』(*Taittirīya āraṇyaka*) 10.63], 『마이트레야 우파니샤드』(*Maitreya upaniṣad*) 6.37,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7.255.10f.,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ītā*) 9.19; 『마누법전』(*Manu smṛti*) 3.76; 9.305, 『야즈나발키야 스므리티』(*Yājñavalkya smṛti*) 3.71.121~124. 이 순환이론에서 태양이 태양광선을 통해 만물에 생명을 주고 빼앗는다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면, ŚB-M 2.3.3.7f., 10.5.1.4; 10.5.2.3; 13, JB 3.359가 있다. 태양광선의 신격들(▶각주 30)은 빛나고 뜨거운 물의 입자들(mārici-)을 마신다. 예를 들면, MS^p 4.5.5.71.2f.(MS^m 1.3.4.31.10), TS^m 6.4.5.5[TS^m 1.4.2.1(f)], VS 7.3-6, ŚB 4.1.1.24f.

32) 나에게 원하는 것을 옮길 때, 번개[稲妻]와 같이 날아가면서, 번쩍이던 물의 딸[āpyā, 물로부터(apō) 남자아이가 멋지게 태어났다고 한다], 우르바시는 자신의 긴 수명을 다한다(vidyūn ná yā pātanti dāvidyod/ bhārantī me āpiyā kāmīyāni/ jāniṣto apō nāriyah sūjātah/ pra ōrvaṣī tirata dīrgham āyuh// RV 10.95.10). 푸루라바스(Purūravas)는 통상적으로 요정(apsarās-)으로 여겨지는 우르바쉬(Urvaṣī)와 함께 살았던 때를 회상하고, 자신의 아들 आयु(Āyu, 아리아 사람들의 조상)를 언급하는 내용을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루에는 태양에 겹쳐서 밤하늘에서 사라지지만, 다시 곧 초승달(新月)로서 모습을 나타낸다.³³⁾ 이 현상은 남성인 달이 부인들인 별(座)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머물고,³⁴⁾ 초하루(밤과 낮)에는 태양의 여신(Sūryā)이 있는 곳에 체재(滯在, 태양과의 결혼)³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에는 초하루 밤의 달은 [태양이 아니라] 대지에 묵는다는 설도 생겨난다.³⁶⁾ 또한 달의 출몰이 매일 평균적으로 50분씩 태양보다 늦어져서, 초승달일 때는 태양에게 추월당하기 때문에, 태양, 즉 인드라(Indra)가 달(Vṛtra를 상징)을 쫓아가서 마셔 버린다는 설도 성립된다.³⁷⁾ 또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부터 달이 신들의 음식, 즉 ‘불사를 지닌(amṛta-) 음료’인 소마(▶각주 17), 또는 달에 비축된 소마를 신들이 마신다는 해석도 생겨난다.³⁸⁾ 더 나아가 죽은 자의 영혼·기식(氣息)이 신들의 음식물인 달(또는 달에 축적된 소마)과 동일시되어, 신월제의 전날에 조령제(祖靈祭, Piṇḍa-pitryajña)가 행해진다.³⁹⁾ 어떤 것이든지 초하루 날에 식물(植物)을 뜯

33) 참조: 사카모토(고토) 준코, 『古代インドの歴と‘昴’(kṛttikāṣ)], 『天空の神話—風と鳥と星』, 篠田知和基編, 2009, pp.596~592(101~105).

34) 달(소마 왕)이 프라자파티(Prajāpati)의 딸인 나크샤트라(nākṣatra-)들을 부인으로 했으나, 로히니(Rohiṇī, 牧牛座 α)만을 총애한 결과로 질병((rāja-)jyākṣma-; Cf. Zysk, *Medicine in the Veda*, 1985, (rep 1996), pp.12~15)에 걸려서 마르고 쇠약해졌으나, 평등하게 순서대로 각 나크샤트라들의 (장소에) 머문 결과 회복했다는 신화가 남아 있다. MS^p 2.2.7.21.4~14, ~ KS^p 11.3.147.1~12, ~ TS^p 2.3.5.1~3[Cf. Caland, *Altindische Zauberei*, Verh. der Koninkl. Akademie van Wetenschapen te Amsterdam(1908), rep. 1976, Nr. 120; Krick, *Das Ritual der Feuergründung*, 1982, p.24. 또한 Anm. p.45]. 이 신화의 배경에는 부인을 방문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5) RV 10.85.1~6(「혼인의 노래」 도입부)은 달과 태양의 결혼, 또한 지상에서 현공된 소마를 신들이 마시는 것을 통해 달이 다시 차기 시작하는 것이 주제이고, 신월제의 기원에 대해 시사한다(▶각주 40).

36) 예를 들면, ŚB 1.6.4.5, 15(cf. 2.4.4.20), 6.2.2.16(Prajāpati = 달), 11.1.1.4.

37) 예를 들면, RV 10.55.5, ~ AV 9.10.9; ŚB 1.6.4.18~20. 또한 RV 10.85.18, ~ AV 7.81.1(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쫓아가서 만나는 두 자식)을 참조하라.

38) 예를 들면, AV 7.81.6, AB 7.11, ŚB 1.6.4.5:14~17; 2.4.2.7; 11.1.4.4, BĀU 6.2.16, ~ ChU 5.10.4(二道說: ▶3.3).

39) AV 7.81.5(달은 죽은 자의 기식(氣息)으로 스스로를 감싼다), 『카우쉬타키 우파니샤드』(*Kauṣītaky upaniṣad*, 각주 KauṣU로 축약) 1.2(죽은 자는 달에 간다. 죽은 자의 기식(氣息)에 의해 달은 흰 반달로 커진다. 검은 반달에서는 죽은 자를 지상에 돌려

죽인 소마(또는 그 대체물)를 지상에서 현공하여, 신들 또는 인드라가 그것을 마시면 천상의 소마인 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⁴⁰⁾ 이렇게 하여 달과 대지 사이를 신들의 음식물이며 ‘불사를 지닌 음료(amṛta-)’인 소마, 또는 죽은 자의 영혼(靈魂)·기식(氣息)이 오고 가고, 그것에 따라서 달이 차거나 기우는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한다.⁴¹⁾

이렇게 물이 불사를 지닌(amṛta-) 것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태양계통 이론과 달계통 이론이 물의 순환이론에 공존하게 된다. 전자[太陽]는 신의 길(devayāna-, 神道)로서, 후자[月]는 조상의 길(pitryāna-, 祖道)로서 2도설(二道說)(▶3.3)에 융합(融合)된다.

보내 재생시킨다. 달 = 소마가 레타스(rétas-, 정액)를 주어서 수태시켜 자손을 갖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RV 1.91.16ff., 9.83.3; 9.86.39; 10.184.2[초승달의 여신(Sinivāli와 수태), AV 7.81.3ff., TB^p 2.7.4.1(Soma-Sava, 소마는 retodhā-‘(제주에게) 정액을 두는 것을 정하는 것’), MS^p 1.6.8.9:103.19, ŚB 2.4.4.18(초하루 밤에 검은 반달 = Mitra가 흰 반달 = Varuna에게 정액을 주입하면 달이 재생한다), 2.5.1.9(소마 = rétas-), JB 1.17f. = 50, ~ KauṣU 1.2(보름달로부터 초승달까지의 사이, 달 = 소마가 짜여서, 남자에게 정액이 전달되어 수태), BĀU 1.5.15(초하루의 밤, 프라자파티의 16분의 1이 생물에게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탄생한다).

40) RV 10.85.4f.(▶각주 37), MS 1.69:101.55ff.[초승달은 신들의 사다스(sádas-), 즉 소마제에서 제관들이 소마를 마시는 작은 집; 보름달은 신들의 하비르다나(havirdhāna-), 즉 곡물제·소마제의 공물의 재료를 쌓은 짐차], ŚB 1.6.4.5~8.15(sāmnāyā-). 체계화된 슈라우타 제식에서는 신월제의 주요 공물은 만월제와 같이 쌀 케이크(puroḍāśa-)이고, 특수한 신월제는 다디(dādhi-)와 신선한 우유(生乳)를 혼합한 것(sāmnāyā-)이 소마를 대신하여 인드라에게 바쳐졌다. RV 이후 달과 소마의 동일시는, 그 기원으로 신월제에서 소마가 현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주(移住) 생활과 함께 소마(麻黃)의 입수가 어렵게 되어 소마가 [요구르트와 신선한 우유를 혼합한] 삼나이아(sāmnāyā-)로 대응되고, 다시 만월제와 같은 곡물(쌀 케이크 puroḍāśa-)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월제의 현공과 [요구르트와 신선한 우유를 혼합한] 삼나이아(sāmnāy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니시무라 나오코(西村 直子), 『放牧と數き草刈り』, 2006, pp.43~45: 3-1을 참조하라. 또한 조령제와 소마 현공과의 관계도 주목된다. RV 10.14-18 「죽은 자의 노래」 등에서 발견되는 조령에게 소마의 현공, 조령에게 somyā-라고 호칭, 조령제(祖靈祭)에서 sóma- pitṛmant-(AV 18.54.72 등)로의 현공, ‘초하루에 달 = 소마를 조령에게 주는 것, 소마는 pitṛdevatyā-인 것’(ŚB 2.4.2.12).

41) 예를 들면, RV 10.85.1~6, AV 7.81.1~6; 8.10.19f, ŚB 1.6.4.15~18; 2.4.4.18~20, JB 1.17f = 50, BĀU 1.5.15, KauṣU 1.2.

4.3. 물의 속성과 믿음(śraddhā-)

4.3.1. 물은 모든 세계와 생물의 체내에 편재하고, 형태를 바꿔 가며 언제나 유동하면서 영원히 우주를 순환하지만, 그 본질은 변화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불사(不死, amṛta-), 불멸(不滅, ākṣiti-), 진실(眞實在, satyā-)이라는 관념이 나온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2),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곧 진실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 진실은 믿는 것의 근거이다. 따라서 프라니타(Pranīta) 의례 만트라에서 진실인 물을 통해 믿음을 파지(捕捉)한다는 발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진실과 믿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고방식이 진실인 물과 믿는 것(śraddhā-)의 동치로 이어졌다(▶3.1).

4.3.2. 물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제멋대로[奔放不羈] 흘러서, 자연에서는 재해를 일으키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을 발생시킨다. 밤에도 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어떤 장소에서는 수평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⁴²⁾ 물들 상호 간에 연락을 하고 협력함으로써 만물을 감시한다. 또한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를 배신하는 자를 처벌하고 약속·맹세를 보증한다. 물을 증인으로 세워 맹세하고 계약하는 습관은 예로부터 존재하였으며(▶5.4), 이것이 물과 믿음을 두는 것의 등치를 촉진하였다고 추측된다.

V. 인도 제식과 의례에서 물(āpas)의 역할

물(āpas, 나중에는 udakā-)의 제식, 즉 의례에서 물의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룰 것이기에 여기서는 요점만을 열거한다.

42) 예를 들면, RV 1.83.1 āpah [...] vicetasah ‘모든 방향의 것들을 알아차리는 물’[도야마 에이지로(堂山 英次郎)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5.1. 정화작용을 통한 성별(聖別)

물의 일상적 작용은 무엇보다 ‘더러움을 씻어 흘려보내는’ 작용이다. 물의 정화작용은 제식의 다양한 장면에서 성별(聖別)을 위해 이용된다. 물을 흘짝이기, 물에 접촉하기, 목욕하기, ‘제주, 제물, 희생동물의 목욕, 바닥에 까는 풀, 땀감 나무, 의식용 도구’ 등에 물을 뿌리기(prokṣaṇa-) 또는 씻기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진다.⁴³⁾ 신월제와 만월제(이어서 모든 슈라우타 제식)의 전날(Upavasatha)에 제주는 머리와 수염을 제거하고 목욕을 한 후, [바라문을 상징하는] 거룩한 끈을 걸치고, 2번 물을 흘짝이고(또는 물에 접촉하고), 아하바니야 제화에 불씨 나무를 지피고, 의궤(Vrata, 제주로서의 책무)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소마제를 시작(開始)하면서 물을 사용한 결제(Apsudīkṣā)를 끝맺는 희생제를 마치는 목욕(Avabhṛta)에서도 머리와 수염 등을 제거한 다음 목욕을 한다(▶6.1, 6.2).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화만이 아니라 죽음과 재생, 즉 세속적 존재(家長)로서 죽고 거룩한 존재(祭主)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또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죽고 세속적 존재로서 재생함도 상징한다. 같은 의미로 베다 학습[梵行, Brahmācarya]과 고행(苦行, Tapas) 등의 거룩한 행위를 개시하기 전과 종료한 후에도 머리와 수염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 목욕을 한다.⁴⁴⁾ 또한 제관들도 목욕을 통해서 제식에 적합한 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여겨졌다(▶6.3).

5.2. 부정의 정화

장례식 끝에 참가자가 목욕을 하는 것도 ‘부정을 씻어 내기’로 해석된다. 장례식 또는 조령제, 즉 ① 가정제에서는 슈라-앗다(Śrā-

43) 참조: 동물 희생제에서 물의 용법과 관련하여 고토 토시후미(後藤 敏文), 「古代インドの祭式概観・形式・構成・原理」(總合入門叢書, Vol.3, 2008, pp.57~102), pp.88~92 (paśu 動物犠牲祭次第 등).

44) 참조: 사카모토(고토) 준코, 「髪と鬚」, 『日本印佛學會年報』, 59(1994) = 「佛敎における聖と俗」(1994), pp.77~90.

ddha-, 祖靈祭) ② 슈라우타 제식에서는 신월제 전날의 핀다피트리야즈나(Piṇḍapitryajña) ③ 차투르마스야(Cāturmāsya)의 일종인 사카메다(Sākamedha) 제식과 함께 일 년에 한 번 행하는 마하피트리야즈나(Mahāpitryajña)에서 물을 붓는 의례,⁴⁵⁾ 특히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물을 붓는 의례(udakakarman-, udakakriyā-)⁴⁶⁾는 정화라는 물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주를 순환하는 ‘불사·불멸·진실’인 물이 조상의 영으로서 하늘로 올랐다가 지상으로 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역할도 한다. 조령제를 의미하는 śraddha-(슈라-앗다)는 믿음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śraddhā-(슈랏다-)의 파생어인데, 물로 상징되는 생명주체(죽은 자의 영혼)의 순환과 재생, 그리고 불멸과 불사를 믿는 것과 관련된 의례라고 해석된다.

5.3. 감시(▶각주 42)와 수호·액막이

신월제 전날 밤(Upavasatha)에는 요구르트(酸乳, dādhi-)를 만들고, 그것을 넣은 용기를 물로 하여금 다음날 아침까지 감시하게 한다. āpo jāgrta[물이어! 그대들은 눈을 뜨고 있어라.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의 만트라 1.1.3.2.11(『카타카 상히타』의 만트라, 『카피슈타라카타 상히타』(Kapiṣṭhalakathā- Saṃhitā)의 만트라 등)].⁴⁷⁾ 본 제식[本祭]을 시작한 후에 거행하는 프라니타(Praṇīta) 의례를 언급하는 『마이트라야니 상히타』의 산문 4.1.4.5.18~6.6에서는 āpo rakṣoghnī(물은 훼손하는 힘을 쳐부수는 것)라고 서술한다(▶3.1).

45) Cf. 장례: Caland, *Altindische Toten-und Bestattungsgebräuche*, 1896 [rep. 1991], pp.55f., 72ff.; cf. Śraddha: Caland, *Altindische Anhengcult*, 1893, p.33, 48, 59, 64; cf. Piṇḍapitryajña: 『아파스탐바 슈라우타수트라』(Āpastamba śrautasūtra, 각주 ĀpŚS로 축약) 1.8.10~12; 9.14; 10.4; 10.14 등; cf. Mahāpitryajña: ĀpŚS 8.16.4; TB 1.6.9.9f. 등.

46) Cf. Caland, *Altindische Toten-und Bestattungsgebräuche*, pp.76~79. Hillebrandt, *Rituallitteratur*, 1897, p.89. 이 의미로 사용된 udakam + √dā/√kr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서 많이 발견된다. *Dasaratha-Jātaka*(N.461, Ja-a 4.126)에는 이 의례의 흔적이 남아 있다.

47) 니시무라 나오코 선생의 자료에 근거.

5.4. 맹세와 계약의 보증과 처벌⁴⁸⁾

제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을 파지[捕捉]하기 위해, 제식을 시작할 때에 물을 아하바니야 제화(祭火) 쪽으로 가져가는 프라니타(Praṇīta) 의례(▶3.1)도 이 유형에 속한다.

맹세·저주·계약·증여·결연·재판 등에서 물을 증인으로 삼는 풍습은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제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뿌리내려 현대에도 남아 있다.⁴⁹⁾ 물을 이용한 맹세의 오래된 실례는 『아타르바 베다』 7.83.2(Paipp. 1.103.4)cd이다.

[바루나가 관할하는] 각 조항으로부터, 왕이여. 지금부터 바루나여. 우리들을 해방시키소서. 만일 ‘물이여! 죽임을 당할 일이 없는 것들(aghnyā-)⁵⁰⁾이여!’라고. [또는] ‘바루나여’라고 우리들이 발설했다면, 그것(그 맹세)으로부터 바루나여! 우리들을 해방시키소서.⁵¹⁾

동물 희생제의 마지막에 심장을 굽는 꼬치를 처리한 후 읊는 만트라라는 이 시 구절의 변형이다.⁵²⁾ 한편, 상대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48) 물의 정령이 남자 인간에게 배신당해, 같은 편인 물이 복수하는 중세 유럽의 전설(Fouqué, *Undine*, 1811, 그것을 희곡화한 Giraudoux, *Ondine*, 1939)과의 관계가 흥미롭다.

49) 참조: 구체적 실례와 문헌에 대해서는 고토 토시후미, 「古代インドの祭祀概観」(▶각주 43), pp.91f. 「祭式と水」.

50) ‘홀륭한(우유를 잘 내는) 암소들’을 의미하지만, 물과 동치된다. AV 9.44.9(Paipp. 15.3.9) ‘물이 aghnyā-이다.’ Cf. Narten, “Vedisch aghnyā- und die Wasser”, AON, 1971, pp.120~134 = KI. Schr. pp.120~189. 특히 pp.186~189.

51) dāmno-dāmno rājann ito varuṇa muñca nah/ yád āpo ághnyā itī varuṇēti yád ūcimá varuṇa muñca nah//.

52) [바루나가 관할하는] 각각의 조항으로부터, 왕이여. 지금부터. 바루나여. 우리들을 해방시키소서. 만일 ‘물이여! 죽임을 당할 일이 없는 것들(▶각주 50)이여. 바루나여!’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맹세한다면, 그것(그 맹세)으로부터 바루나여! 우리들을 해방시키소서(dhāmno-dhāmno rājann ito varuṇa no muñca. yád āpo ághniyā varuṇēti śapāmahe táto varuṇa no muñca.//TS^m 1.3.11.1(f)/). MS 1.2.18; 28.5~7(śapāmahai Konj.); KS 3.8; 27.1f; VS 6.22; ŚB 3.8.5.10(itó를 대신해서 táto, āpo를 대신해서 āhúr); TB 2.6.6.2(후반만); ĀśŚS 3.6.24(ito 대신에 iha); ŚānŚS 8.12.11; LātŚS 5.4.6; 『마나바 슈라우타수트라』(*Mānava śrautasūtra*, 이하 MānŚS로 축약) 1.8.6.21; ĀpŚS 7.27.16; 또한 MS 3.2.10; 157.7(Pratīka, Sautrāmaṇi), MānŚS 1.7.4.43(Cāturmāsyā, Varuṇapraghāsa) 등. Cf. Schwab,

증여(贈與)하는 실례가 불교 경전(佛典)에서 다수 발견되며, 바르훗(Bhārhut)과 산치(Sāñcī) 등의 부조에도 묘사되어 있다.⁵³⁾

(1) 마가다 왕 빔비사라(Bimbisāra)가 세존께
벨루바나(Veḷuvana)를 바침

그곳에서 마가다 왕 세니야 빔비사라는 황금으로 만든 물 붓는 그릇을 잡고, 세존의 [손을] 닦게 하였다(손에 물을 부었다). “옥체(御身) [높은 분]이여. 저는 벨루바나(Veḷuvana) 정원(遊林)을 붓다를 대표(先頭)로 하는 비구 집단에 바칩니다”라고 [말했다].⁵⁴⁾

(2) 아나타핀디카(Anāthapiṇḍika) 장로가 세존께
제타바나(Jetavana)를 바침

위대한 상인의 장자(長者)가 황금으로 만든 물 붓는 그릇을 들고, 10개의 능력을 지닌 [세존]의 손에 물을 붓고서, “이 제타바나 비하라(Jetavana-vihāra)를 과거·미래의 [붓다], 그리고 사방의 붓다를 대표(先頭)로 하는 집단에 나는 바친다”라고 [말하면서] 주었다.⁵⁵⁾

Das altindische Thieropfer(1886), pp.161f.; Nr. 112.

53) 예를 들면, ‘기원(祇園)의 보시(布施)’ 바르훗(Bhārhut)의 난간 기둥(B.C. 1세기): 유럽의 중앙에서 물 붓는 그릇을 손에 쥔다. Anāthapiṇḍika[Cunningham, *The Stūpa of Bharhut*, 1879, (2ed, 1962), pp.84~87, Jetavana Monestery, Plate 57, plate 28]; 현관의 낮은 마루와 바닥과의 수직 부분(Peshawar 미술관, A.D. 1세기 말기, 高田 修 『佛像の起源』 圖版 17); 작은 물병을 손에 든 세존과 마주하는 Anāthapiṇḍika; “Vessantara-Jātaka” 산치 제1탑 북문 뒷면 부조: 상대의 손바닥에 물을 부으면서 두 아이와 부인을 바라문에게 건네는 Vessantara 왕자(Marshall-Foucher, *Sāñcī*, 1940, ²1982, Plate 24); 같은 모양으로 흰 코끼리와 전차를 증여(Plate 23).

54) Vinaya 1.39.14~18(Mahāvagga 1.22.18) atha kho rājā māgadhō reniyo bimbisāro sovaṇṇamayam bhinkāraṃ gahetvā bhagavato onojesi. etāhaṃ bhante Veḷuvanaṃ uyyānaṃ buddhapamukhassa bhikkusaṃghassa dammīti.

55) 『자타카 앗타반나나』(*Jātaka aṭṭhavanannā*) 1.93.10~15(Nidānakathā) mahāseṭṭhi suvaṇṇabhikāraṃ ādāya dasabalassa hatthe udakaṃ pātetvā imaṃ jetavanavihāraṃ āgatānāgatasa cātuddisassa buddhapamukhassa saṃghassa dammīti adāsi.

(3) 벳산타라(Vessantara) 왕자[菩薩]가 두 아이와 부인을 바라문에게 보시함(Vessantara-Jātaka, N.547; Ja-a 6.547.8-10; 570. 4f., 9f.)

[벳산타라는] 서둘러서 물그릇에서 물을 퍼내서, 그 물을 [바라문의] 손에 붓고서 부인을 바라문에게 바쳤다.⁵⁶⁾

VI. 물에 대한 『리그 베다』 찬가

마지막으로 물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하는 몇 개의 『리그 베다』 찬가를 소개한다.

6.1. 『리그 베다』 10.17.10⁴⁷⁾

소마제를 시작할 때, 물을 통한 결제(Apsudīkṣā)에 사용된 만트라이다.⁵⁷⁾

어머니들이 물은 우리들을 정화하소서. 녹은 버터를 통해 우리를, 녹은 버터를 씻어 내는 자들은 정화하소서. 모든 더러움을, 하늘에 속하는 여인들(여신들)이 옮겨서 없애기 때문에. 그녀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밝게 빛나는 자로서 정화되어서, 나는 확실하게 일어나 나간다.⁵⁸⁾

56) Ja 6.547.4f. sīgham eva kamaṇḍalunā udakaṃ āharitvā udakaṃ hatthe pātetvā bhāriyaṃ brāhmaṇassa adāsi.

57) ~ AV 6.51.2 또는 YV-Mantra : MS 1.2.1:10.1; 3.6.2:61.7, KS 2.1:8.10, TS 1.2.1(f), VS 4.2, ŚB 3.1.2.11, ĀpŚS 10.6.1 등.

58) āpo asmān mātāraḥ śundhayantu/ ghr̥tēna no ghr̥tapuvāḥ punantu/ viśvaṃ hī riprām pravāhanti devīr/ úd id ābhyaḥ śúcir ā pūtā emi//.

6.2. 『리그 베다』 1.23.16~22⁵⁹⁾

여기서는 강에게 바친 헌공과 소마제 끝에 행한 목욕(Avabhr̥tha)이 의도된 것 같다.⁶⁰⁾ 계송22는 ‘맹세의 물’을 언급한다.

어머니들이 길들을 따라 나아간다. 제식의 여정[行程]에 종사하는 [제관]들의 혈연자로서, 우유를 꿀(소마)과 섞어가면서(16).

태양의 자리가 있는 저쪽의, 또는 태양이 그것들과 함께 있는 그녀들은 우리들 제식의 여정[行程]을 확립하소서(17).

하늘에 속하는 [여신인] 물을 나는 불러 모은다. 우리들의 소들이 마시고 있는 장소로. 강들을 위한 공물(供物)을 만들어야만 한다(18).

물 가운데 불사(不死)가 [있다]. 물 [가운데] 약이 있다. 그리고 물의 칭송[賞讚]을 [받기] 위해서, 신들이여. 그대들은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라(19).

소마가 나에게 말했다. 물 안에 모든 약이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의 행운이 될 불[이 있다고]. 그래서 물은 모든 약을 지닌 것이다(20).

물이여. 약을 채워라. 나의 신체를 위한 방책(防禦)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태양을 보기(장수하기) 위해(21).

물이여. 이것을 옮겨서 없애라.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는 곤란(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는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또는 거짓을 맹세한 것이 있다면(22).

물이여. 오늘 나는 [그대들]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대들의] 정수(精髓)와 우리들은 합체한다. 우유를 지닌 자인 아그니여, 오라. 이렇게 하여 나를 [제관(祭官)으로서의] 효력(效力)과 결합시켜라(23).

계송24는 생략. 20~23 = 10.9.6~9(▶6.3)

59) ambāyo yanty ādhvabhir jāmāyo adhvarīyatām/ pr̥ṇcatūr mādhunā pāyah//16// amūr yā ūpa sūrye yābhir vā sūriyah sahā/ tā no hinvantv adhvarām//17// apō devīr ūpa hvaye yātra gāvaḥ pibanti naḥ/ sindhubhyaḥ kārtvaṃ haviḥ//18// apsv āntar amītam apsū bheṣajām apām utā prāśastaye/ dévā bhāvata vājinaḥ//19// apsū me sómo abravīd antār viśvāni bheṣajā/ agnīm ca viśvāśambhuvam āpaś ca viśvābheṣajīḥ//20// āpaḥ pr̥ṇītā bheṣajām vārūtham tanvē māma/ jyōk ca sūryam dr̥śē //21//idām āpaḥ prā vahata yāt kīm ca duritām māyi/ yād vāhām abhidudrōha yād vā śepā utāntam//22// āpo adyānv acāriṣam rāsena sām agasmahi/ pāyasvān agna ā gahi tām mā sām sr̥ja vārcasā//23//.

60) 선행하는 15시절은 각각의 신들을 소마제에 초대하는 찬가이다.

6.3. 네 편의 물(âpas) 찬가 중에서 대표적인 10.9⁶¹⁾

물이며. 그대들은 실제로 강건함[強壯]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활력 가운데에 두소서. 큰 흥분을 눈으로 보기 위해(1).

그대들의 최고 길상(吉祥)이 되는 정수인 것, 그것에 우리를 여기에서 참여케 하소서. [그것을] 원하는 어머니들과 같이(어머니들로서)(2).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대들의 뜻을 따른다. 그 자(者)가 정주(定住)하기 위해 그대들이 [우리에게] 활기를 주기를. 또한 물이며. 그대들이 우리를 만들어 내는 [그를 위해](3).

행운이 많게. 하늘에 속하는 [여신들인] 물은 우리들에 대한 원조(援助)로서 모습을 드러내소서. 마시기 위해서. 행운이 많게. 수명이 많게. 우리들을 향해 흐르기를(4).

호감이 가는 일[物事]을 뜻대로 하는 [물에게], 여러 경계들을 지배하는 물에게, 나는 약(藥)을 청한다(5).

계송6~9 = 23.20~23(▶6.2)

계송3의 “우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제주(祭主)인 부족장을 위해서 제관들이 목욕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된다(▶5.1). 각 계송은 이후에 제식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계송1~3(8송 일부)은 동물 희생제에서 대망막(大網膜)의 헌공 후에, 천계를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를 상징하는 차트발라(Cātvalā, 제식 장소의 동북으로 위치하는 흙을 퍼내어 다음의 움푹한 곳)에서 제주와 제관 일동이 행하는 정화 예식 만트라(의 다섯 계송에 포함된다.⁶²⁾

61) âpo hí śṭhâ mayobhúvas tâ na ūrjē dadhātana/ mahé rāṇāya cākṣase //1// yó vaḥ śívátamo rāsas tāsya bhājayatehā naḥ/ usatīr iva mātārah//2// tasmā āraṃ gamāma vo yāsya kṣāyāya jīnvatha/ âpo janāyathā ca naḥ//3// śām no devīr abhiṣṭaya âpo bhavantu pītāye/ śām yór abhi sravantu naḥ//4// tīṣānā vāryānām kṣāyantīś cārṣaṇīnām/ apó yācāmi bheṣajām//5// 6~9(찬가가 끝날 때까지) = 1.23.20~23.

62) ĀpŚS 7.21.6.

국문초록

고대 인도에서 *Śraddhā*-(믿음을 주는 것; 신뢰, 신앙, 믿음)는 종종 *āpas*[(살아 있는) 물; *āp*-의 여성·복수·주격]로 상징되고 심지어 등치(等置)되기도 하였다.

Śraddhā-(신뢰, 신앙)와 *āpas*(물)의 등치는 흑(黑) 『야주르 베다』 상 히타의 산문(YVⁿ)에서 신월제·만월제를 시작하면서 *Śraddhā*-를 파지[捕捉]하기 위해 물을 동쪽(Āhavanīya 제화 방향)으로 옮기는 프라니타(*prañīta*) 의례를 설명하는 부분에 나타난다(MS 1.4.10:59.2~6, ~ KS 32.7:26.12~16; MS 4.1.4:5.18~6.6, ~ TS 1.6.8.1~2, ~ TB 3.2.4.1~3, cf. TB^m 3.7.4). 이러한 등치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5.3.1~10.1과 『브리하드아라냐카 우파니샤드』 6.2.1~16의 5화설(五火說)의 근처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카우쉬타키 브라마나』 7.4의 “믿음을 두는 것이 단 한 번만 제사 지낸 [제식의 효력(*iṣṭā*-)]의 불멸(*sakṛdiṣṭasya akṣiti*-)”이라는 가르침도 *Śraddhā*-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물과 제주 체내에 존재하는 물의 불멸성”에 대한 설명이다.

고대 인도·아리안 언어는 ‘물’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udān*-, *udakā*-, *vār*-(후대에는 *vāri*-)라는 중성 실명사로 지시된 물질적인 물이다.

(2) *āp*-(주로 주격·복수 *āpas*-)라는 여성 실명사로 지시된 ‘살아 있는 물’이다.

이미 베다 시대에 ‘살아 있는 물’이 우주와 생명체들 사이를 순환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순환하면서도 그 본성이 변화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amṛta*-(不死), *ākṣiti*-(不滅), *satyā*-(實在, 眞實) 등을 상징하게 되었다. 물은 서원을 보증하고 그것을 파기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

으면서 모든 것을 감시한다. Śraddhā(신뢰, 신앙)와 āpas(물들)의 등치는 이러한 살아 있는 물들에 대한 관찰에 유래한 것 같다.

▶ 주제어: 믿음을 두는 것, 물의 순환, 제식, 불멸, 정화.

In the ancient India, *Śraddhā*- ‘placing trust; trust, belief, faith’ was often symbolized by *āpas*(nom. pl. fem. of *āp*-) ‘the (living) waters’ and even equated with them.

The equation of *Śraddhā*- ‘trust, belief’ with ‘waters’ appears in the prose of the Black *Yajurveda-Saṃhitās* explaining the Praṇīta rite, i. e. the leading of the waters to the east (to the Āhavanīya fire) in order to grasp *Śraddhā*- in the beginning of the new-moon and full-moon sacrifices: MS 1.4.10:59.2-6, ~ KS 32.7:26.12-16; MS 4.1.4:5.18-6,6, ~ TS 1.6.8.1-2, ~ TB 3.2.4.1-3, cf. TB^m 3.7.4. Such equation underlies also “the doctrine of the five fires” (pañcāgnividyā-) in the *Chāndogya-Upaniṣad* 5.3.1-10.1 and the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6.2.1-16. On the other hand, the *Kauṣītaki-Bṛāhmaṇa* 7.4 teaches that “the imperishability of the effect of an only once performed sacrifice”(sakṛdīṣṭasya akṣiti-) is guaranteed by *Śraddhā*-, which is explained as “the imperishability of the waters in the outer worlds and in the body of the sacrificer.”

The old Indo-Aryan language distinguished two types of ‘water’: (1) ‘water as material’ expressed by neuter substantives *udān*-, *udakā*- and *vār*- (later *vāri*-); (2) ‘living waters’ with mind, regarded as feminine divine beings and expressed by a female substantive *āp*- (usually in the plural, nom. *āpas*).

In the Vedic period, it was already recognized that the living waters circulate in the worlds and in the living things. They, however, neither change their nature, nor disappear, in consequence symbolize the ‘immortality’ *amṛta*-, the ‘imperishability’ *ākṣiti*- and the ‘real existence, truth’ *satyā*-. The waters awake day and night and watch everyth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vow and to punish those who have broken it. The equation of

Śraddhā- ‘trust, belief’ with the waters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observation of those characters of the living waters.

► Key Words: placing trust, the living waters circulate, sacrifice, immortality, purification.